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의학 현황 비교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Groping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rom the Comparison of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Korea and Vietnam

권지혜, 이시우, 유종향
한국한의학연구원

Ji-Hye Kwon(wisdom@kiom.re.kr), Si-Woo Lee(bfree@kiom.re.kr),
Jong-Hyang Yoo(jhyoo@kiom.re.kr)

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전통의학병원 임상의를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의학 인식도 및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한국의 전통의학 현황과 비교하여 각국의 전통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350명의 베트남 임상의를 대상으로 1:1 인터뷰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설문 누락 항목이 없는 337건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베트남 임상들은 전통의학 중 침구학과 약초학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실제 임상에서 침구학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마사지와 지압, 약초학 순으로 임상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한국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6%가 침 치료 경험이 있고, 90.7%가 한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통의학 임상들이 진료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신경정신성 질환이 가장 많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진단 방법으로는 설진과 맥진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의 전통의학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전통의학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한국 | 베트남 | 전통의학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among the clinical doctors who working at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 in Vietnam.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3month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2. As a result, the highest recognized traditional medicine was acupuncture(91.4%) and herbal medicine(86.1%). Almost of respondents had ever used acupuncture(99.4%), massage or acupressure(97.6%) and herbal medicine(95.3%) in daily clinical practice. And commonly treated health problem was neurological and psychological disease(23.5%). The most used diagnostic methods were tongue diagnosis and pulse diagnosis(97.6%). This survey will help to explore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traditional medicine of Vietnam and Korea. This survey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actively approach traditional medical market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 keyword : | Korea | Vietnam | Traditional Medicine |

*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 2006-2005175)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28일

수정일자 : 2015년 01월 08일

교신저자 : 유종향, e-mail : jhyoo@kiom.re.kr

I. 서론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의료 행위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서양의학을 통해 발생된 부작용이나 한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2].

또한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898억 달러에서 2015년 1,1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2015년 동안 연평균 5.9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3]. 특히 전통의학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현대 의료 자원이 취약한 인도나 중국 등 아시아권이라고 보고되고 있다[4].

전통의학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문화적 속성이 그리하듯이 어느 한 지역의 의학적 성취는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간다. 중의학이 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한의학 내용이 중국이나 일본의 의서에도 담겨있다[5].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각기의 세계관과 문화를 바탕으로 고유한 방법을 통해 의학의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임상 검증을 받아 발전하면서 각국의 전통의학은 고유의 이론과 임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6].

이렇게 발전된 각국의 전통의학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각국에서는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전통의학 기초연구를 비롯한 실용화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통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한의사를 대상으로 전통의료서비스 시장 현황조사 연구에서 전통의학 서비스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에 대해 2008년도 조사에서는 'IMF 등의 여파

로 인한 국내 경제 위축과 경기 침체'를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전통의학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기술정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7] 국내외의 전통의학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 동안 한의학과 중의학을 비교한 연구나[5], 한국·중국·대만인의 전통의학 이용에 대한 비교 연구[8], 한국 한의학과 인도 전통의학 비교연구[6] 등 한의학과 이웃 나라의 전통 의학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사상적 기원에 대한 비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전통의학 임상의를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의학의 치료기술 및 진단기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한의학과 비교해 봄으로써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 방향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베트남 임상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베트남에 위치한 2개 국립 전통의학병원과 18개의 지역 전통의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 전통의학병원 선정을 위해 전체 베트남 전통의학병원 52개 중 18개를 두 단계에 걸친 군집표본추출로 선정하였으며, 선택된 18개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에서 방사선과, 임상 병리학, 마취과 등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임상의를 단순 임의추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0개 기관 총 350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누락이나 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설문 13부를 제외한 337부의 설문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베트남 전통의학 국립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e Research Board :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1:1 인터뷰 형식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설문은 한의학 박사과 베트남 전통의학 전문의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아 13가지 전통의학 종류(약초학, 침술, 베트남 민속의학, 기능성 식품, 기공, 척추지압요법, 요가, 식이요법, 반사요법, 아로마 요법, आयुर्वेद, 동종요법, 사상체질의학)를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베트남 임상에서의 전통의학 치료기술 활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4가지 전통의학 치료법(침술, 마사지 및 지압, 약초학, 척추 지압요법, 부항, 베트남 민속의학, 식이요법, 보조제, 기공, 아로마 요법, 요가, 반사요법, 동종요법, आयुर्वेद) 및 주요 진료대상 질환과 주요 진단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1:1 인터뷰 형식의 자료조사를 위해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사전에 면담자 교육을 진행하여 설문응답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실제 베트남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통의학 치료법의 종류 및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의 주요 진료 대상 질환 및 주요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9 Program을 이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337건의 자료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168명, 여성이 169명이었으며, 연령의 경우 20대가 50명(14.8%), 30대가 105명(31.2%), 40대가 119명(35.3%), 50대 이상이 63명(18.7%)으로 30-4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자의 근무지 형태를 병동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병동 근무가 82명(24.3%), 외래 근무는 255명(7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는 학사가 180명(53.4%), 석사가 113명(33.5%), 박사가 44명(13.1%)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전통 의료 임상경력은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130명(38.6%), 10년 이상 - 20년 미만의 경력자는 125명(37.1%), 20년 이상 경력자는 82명(24.4%)이었고,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의 경우 하루 20명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183명(54.3%)로 가장 많았고 20-40명 사이가 118명(35.0%), 하루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36명(10.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ontents		N	%
Gender	Male	168	49.9
	Female	169	50.1
Age	20-29	50	14.8
	30-39	105	31.2
	40-49	119	35.3
	50-59	63	18.7
Workplace Department	Inpatient	255	75.7
	Outpatient	82	24.3
Education	Bachelor	180	53.4
	Master	113	33.5
	Doctor	44	13.1
Experience in Orient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by Year	0-9	130	38.6
	10-19	125	37.1
	Over 20	82	24.4
Number of Patients to Care per Day	0-19	183	54.3
	20-39	118	35.0
	Over 40	36	10.7

3.2 전통의학에 대한 인지도

전통의학의 종류를 13가지 약초학, 침술, 베트남 민속의학, 기능성 식품, 기공, 척추지압요법, 요가, 식이요법, 반사요법, 아로마 요법, आयुर्वेद, 동종요법, 사상체질의학으로 분류한 후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 임상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임상에서 사용할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체 337명 중 308명(91.4%)이 침 요법이라고 하였으며, 약초학 290명(86.1%), 베트남 민속의학 239명(70.9%), 식이요법 199명(59.1%) 순으로 나타났고, आयुर्वेद 및 사상체질의학에 대해서는 절반의 응답자가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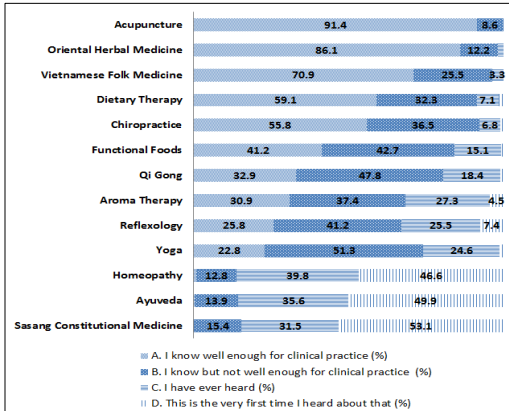


Fig. 1. Awareness of Traditional Medicine

3.3 전통의학 치료법 활용 현황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의학 치료법의 종류에 대해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4%(335명)가 침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사지와 지압요법이 97.6%(329명), 약초학 95.3%(321명), 척추 지압요법 76.6%(258명), 부항 70.33%(2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민속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66.2%(223명)으로 나타났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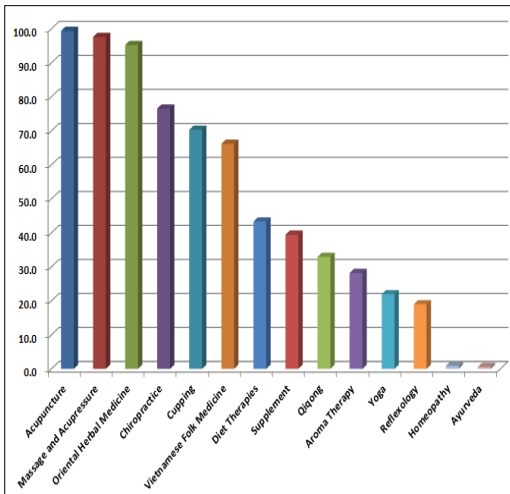


Fig. 2. Clinical Practice of Traditional Medicine Therapies (N=337, multi options)

3.4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에서의 주요 진료 대상 질환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에서 진료하는 주요 대상 질환을 살펴본 결과 신경정신성 질환에 응답한 경우가 23.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 질환 18.3%, 심혈관 질환 14.6%, 소화기 질환 11.8%, 대사 질환 10.3%, 비뇨기 질환 8.8%, 호흡기 질환 8.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피부 질환, 안이비인후 질환, 종양은 2% 미만으로 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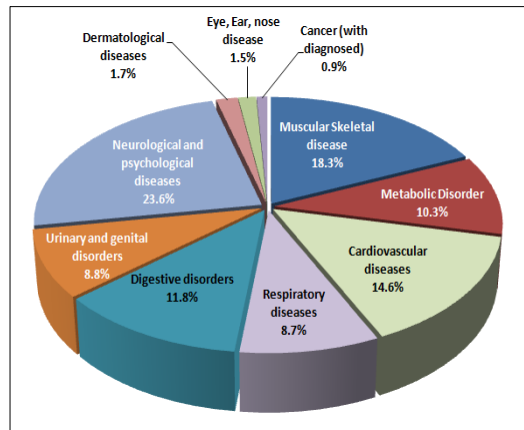


Fig. 3. Main Target Disease in Traditional Medicine (N=337, multi options)

3.5 베트남 전통의학병원의 주요 진단 방법

베트남 전통의학병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방법으로는 맥진(脈診)과 설진(舌診)이 329명(97.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진(問診) 324명(96.1%), 안면 313명(92.9%), 목소리 306명(90.8%), 복진 280명(83.1%), 피부 235명(69.7%) 순으로 나타났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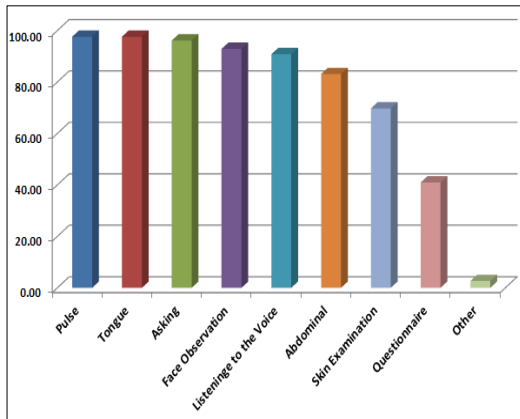


Fig. 4. Diagnostic Methods of Traditional Medicine (N=337, multi options)

IV. 고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요구수준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9].

이 같은 변화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전통의학 연구자들 간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전통의학 발전 방향을 바라보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특히 아세안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최근 Post China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적인 투자가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의학을 비교하는 것은 베트남과 전통의학에 대한 교류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전통의학은 고대로부터 내려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 치료,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민속의학과 베트남화 한 동양의학이 합쳐진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10], 한국은 한의학을 정규의학으로 포함하면서 그 외의 치료법을 보완대체의학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다[11].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전통의학 임상인들의 전통의학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13가지 종류의 전통의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침 요법에 대해 임상에서 사용할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약초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 임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의학 치료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침 치료가 9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사지와 지압이 97.6%, 약초학 95.3% 순으로 나타나 베트남 내에서 침과, 약초의 인지도가 높으며, 임상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의학 인지도 조사는 별도로 없지만, 한국의 한방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관한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12]에 따르면 약 5,000명의 대상자중 98.6%가 침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0.7%가 한약 복용 경험이 있었다. 또한 한방 진료 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법으로 침 치료가 48.0%, 물리요법이 20.3%, 한약이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과 약초학이 전통의학 치료기술로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의 전통의학 치료기술 중 마사지와 지압이 침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 전통의학병원의 주요 대상 질환이 신경·정신성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임을 고려할 때 신경이완 및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법으로 그 활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 지압이 근골격계 기능 회복,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는데[13] 향후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의학 공동연구 주제로 논의할 만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다.

베트남 전통의학이 크게 민속의학과 동양의학으로 이뤄진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인들이 베트남 고유의 민속의학에 대해 임상에서 사용할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0.9%였으며, 임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도 66.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임상한의사들이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 받은 경우가 100%였다는 점과 한의학의 위상 확립을 위해 민속의학을 포함한 대체의학과와의 관계 형성에 노력을 취해야 함이 필요하다[11].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고유 의학인 체질의학과 인도 고유 의학인 आयुर्वेदा에 대해 50%정도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분야라고 한 점은 각국의 우수한 고유 의학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베트남의 고유 전통의학에 대해 조사해서 이를 한국의 체질학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 전통의학 병원에서 진료하는 주요 대상 질환을 살펴본 결과 신경정신성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 질환,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대사 질환, 비뇨기 질환, 호흡기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한방 의료 이용 보험 청구 건수로 비교하였을 때 요통, 염좌, 견비통과 같은 근골격 질환에서 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2], 이는 근골격 질환의 치료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침 치료의 활용도가 베트남과 한국에서 모두 높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특히 국내에서 조사한 체질의학 처방에 대한 유효질환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체질처방 활용 시 효과가 있다 여기는 질환은 양방질환의 경우 소화기 질환, 순환기 질환, 내분비계 질환 순이었으며, 한방질환의 경우 비계질환, 심계질환, 신경정신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전통의학에 강점을 보이는 질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해결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부각시킬 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통의학병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7.6%가 맥진(脈診)과 설진(舌診)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맥진(脈診)과 설진(舌診)은 한의학에서도 신체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중요한 양대 요소로서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진단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맥진 분야는 동양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맥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맥진기 개발을 위해 맥상의 발생 기전, 검출 방식, 임상적 응용 방법 등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15] 설진 또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설진기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특정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최근 들어 비침습적 진단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맥진과 설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기기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겨지고, 이런 연구들을 통한 임상정보들의 객관성 및 재연성 확보는 전통의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전통의학 치료기술법, 주요 대상 질환 및 진단방법 등 한국과 베트남과 전통의학의 유사점들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베트남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그 동안 한국과 베트남이 자국의 전통 의학을 소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각국의 전통의학 계승,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트남 전역의 전통의학병원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의학 활용현황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해 국내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1:1 면담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전통 의학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국이 전통의학 발전에 대해 고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베트남 전통의료 시장의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트남 전통의학병원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한국의 전통의학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은 보완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S. H. Landers, "Why health care Is going hom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63, No.18, pp.1690-1691,2010.
 [2] 조현, 유진영, 박수희, "대체의학의 임상실험 현황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pp.603-606, 2010.
 [3]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산업진

홍원, 2013.

[4] 이태형, 강연석, 차웅석, “한국저널에 수록된 보완 대체의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DBpia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9-80, 2009.

[5] 김병수, 강정수, “동의보감 집례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의 삼원적구조-한의학과의 비교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746-753, 2008.

[6] 김덕근, “한국한의학과 인도전통의학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01-216, 2005.

[7] 백영화, 김윤영, 장은수,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한의원 경영 현황 및 한의사의 인식도 조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7권, 제5호, pp.667-671, 2013.

[8] 남민호, 김윤지, 김호선, 박준형, 葉杏伊, 이예슬, 이순호, 정원모, 홍윤기, 이해정, 박희준, 채윤병, “한국, 중국, 대만인의 전통의학 이용 의향에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제32권, 제1호, pp.36-55, 2011.

[9] 송성환, 최지에, “세계 전통의학 동향과 주요 한의학 R&D 분야에 관한 연구”, 제16권, 제1호, pp.101-109, 2010.

[10] V. T. Nguyen, “Traditional Medicine in Vietnam. In: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London: Serindia Publications, pp.209-216, 1995.

[11] 김슬기, 이상훈, 서현주, 백승민, 최선미, “국내 보완대체의학 사용 실태조사 연구의 동향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제33권, 제1호, pp.24-41, 2012.

[12]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2.

[13] 이대원, 박지형, 엄시내, 김도원, 조승현, 고창용, 김한성, “지압과 온열의 조합마사지가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제33권, pp.194-201, 2012.

[14] 장은수, 유종향, 김윤영, 박기현, 이시우, “사상체질 처방 활용 현황 및 유효 질환 조사”, 사상체질 의학회지, 제23권, 제1호, pp.87-97, 2011.

[15] 박영배, “맥진기의 현황과 전망”,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1권, 제1호, pp.86-94, 1997.

[16] 김근호, 박경모, “설진의 과거와 미래 전망”, 전자공학회지, 제37권, 제7호, pp.702-711, 2010.

저 자 소 개

권 지 혜(Ji-Hye Kwon)

정회원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간호학 학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한의 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간호학

이 시 우(Si-Woo Lee)

정회원



- 2006년 : 원광대학교 한의학(박사)
- 2005년 7월 ~ 현재 : 한국한의 학연구원 한의의료기술연구그룹 그룹장
- 2006년 3월 ~ 현재 : 과학기술 연합대학원 겸임교수

• 2007년 8월 ~ 현재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관심분야> : 한의학, 맞춤형학

유 종 향(Jong-Hyang Yoo)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보건의학 박사)
 - 2007년 11월 ~ 현재 : 한국한의 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보건학, 임상연구